

## News

### 핀테크의 공습...지방銀 비대면 대출 절반 차지

매일경제

토스·핀다 등 핀테크 업체를 통한 비대면 대출 수요가 폭증...지방은행의 경우 자체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대출보다 제휴업체 서비스를 통한 대출 비중이 더 큰 경우도...  
"시중은행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가 약한 지방은행이 제휴 핀테크 업체에 대출 플랫폼이 종속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 엔택트의 역설?... '부동산'으로 돈버는 은행

파이낸셜뉴스

시중은행들이 투자부동산을 통해 쓸쓸한 재미를 보는 중... 임대 규제 폐지와 엔택트 거래 증가에 따른 영업점 축소에 기인...  
5대 은행이 투자부동산을 통해 벌어들인 임대 수익은 총 2853억6900만원...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순...

### '경제 허리' 40대 직장인 빚 가장 많아...평균 6,205만원

서울경제

지난해 기준 직장인들이 1인당 평균 4,245만원의 대출액을 보유...신용대출(11.0%, YoY)과 주택 외 담보대출(15.4%, YoY)은 크게 늘어...  
30대와 40대의 대출액은 평균 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출 기준 연체율은 0.32%로 전년보다 0.05%포인트 증가...

### 은행 주담대 이자율 반등에 영끌족 '좌불안석'

데일리안

국내 5대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올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이후 처음 반등...은행들의 자금 조달 사정이 나빠진 역풍으로 풀이...  
"패닉바잉 심리와 싼 이자에 기대 거액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킨 차주들의 경우 예상보다 일찍 찾아온 금리 오름세에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

### 한은, 10兆 증권·보험사 특별대출제도 3개월 재연장

조선일보

한국은행이 증권·보험사를 포함한 금융회사에 우량 회사채(AA- 이상)를 담보로 실시하고 있는 특별대출인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기한을 석 달 더 연장...  
총한도는 10조원(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대출 기간은 6개월 이내... 담보 대상은 일반 기업이 발생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

### "보험 사기 꼼짝마"... AI, 10여년간 6억 타낸 '꾼' 잡았다

국민일보

갈수록 늘어나는 보험사기에 생명·손해보험 업계가 사기를 예측하고 적발하는 AI 시스템을 잇달아 가동...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한 8809억원이고, 적발 인원은 17% 증가한 9만2538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금감원 '라임사태' 첫 제재심서 결론 못내...내달 5일 재개

데일리안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제재심을 열고 펀드를 판매한 일부 증권사와 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제재심은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시간관계상 일단 금일 회의를 종료했다"

### 금감원, 조만간 삼성증권 검사...물산합병 동원·불법대출 의혹

뉴스1

금융감독원이 조만간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 삼성증권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리테일 부문을 동원한 의혹 등을 확인 예정...  
금감원은 최근 삼성증권에 검사 계획을 사전 통보... 검사 방식은 종합검사...삼성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는 지난 2013년 이후 7년 만...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